

2023년 가을 학기
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들 안에 있는 진리의 중점들 —
고린도전서

메시지 7
무교절의 실재이신 그리스도를 누림

성경: 출 12:15-20, 고전 5:6-8, 눅 12:1, 마 16:6, 12, 막 8:15, 딤후 1:3-4, 5:1-2

- I.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의 연장인 무교절을 지켰다(출 12:15-20, 고전 5:6-8). 누룩은 죄, 악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 악한 교리들, 다른 가르침들, 이상한 가르침들을 상징한다(마 16:6, 11-12, 갈 5:9, 딤후 1:3-4, 히 13:9, 레 2:4, 11).
- A. 유월절의 연장인 무교절은 완성의 기간인 칠 일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돌이킨 날부터 휴거되는 날까지의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상징한다.
 - B. 이것은 긴 명절인데, 우리는 옛 본성의 죄 곧 묵은 누룩으로 이 명절을 지켜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영양분과 누림이 되시는, 우리의 새 본성이신 그리스도 곧 무교병으로 이 명절을 지켜야 한다. 오직 그분만 순수하시고 진실하시며, 온전히 순수하시고 섞인 것이 없으시며 실재가 충만한 생명 공급이시다.
 - C. 명절은 잔치를 누리는 때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전체가 이러한 명절, 곧 생명의 풍성한 공급이신 우리의 잔치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어야 한다 — 출 12:16, 18-19.
 - D.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모두 사울 왕의 손자이며 다리를 절었던 므비보셋과 같다(삼하 4:4). 므비보셋처럼 우리는 여전히 다리를 절지만 왕의 상에서 식사를 하면서 왕의 잔치를 누릴 수 있다(삼하 9:1-13). 우리의 두 발은 절지만, '상 아래'에 있다.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저는 발을 발견하고 낙심하게 된다. 그보다 우리는 자아 성찰에서 돌이켜 주님의 상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측량 못할 풍성들만 바라보고 우리의 누룩 없는 잔치이신 그분을 누려야 한다(아 2:8-3:5, 앎 3:8).
 - E.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하는 죄를 반드시 처리하는 것, 곧 어떤 것이든 보이는 죄인 드러난 죄를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것을 상징한다 — 출 13:7, 12:19, 고전 5:7 상, 히 12:1-2 상.
 - F. 드러난 죄를 처리하는 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드러난 죄를 묵과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교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 출 12:19, 고전 5:13.
 - G. 죄를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 죄인인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잠 20:9, 전 7:20, 눅 18:9-14) 무교병으로 상징되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죄 없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는 것이다(요 6:57, 63, 시 119:140, 렘 15:16).
- II.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위선적이었다 — 눅 12:1, 마 23:13-15, 23, 25-32.
- A. 바빌론의 원칙은 위선이다(마 23:25-32, 눅 12:1). 변절한 교회는 금과 진주와 보석들로 견고하게 건축된 것이 아니라, 단지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거짓된 모습을 위해 이러한 보물들을 장식 삼아 치장하고 있을 뿐이다(계 17:4, 6).
 - 1. 아간의 죄의 의미는 그가 자신의 겉모습을 위해 자신을 더 좋게 보이게 하려고 스스로를 개선하기를 구하면서 바빌론의 아름다운 겉옷을 가지려고 욕심을 낸 것이었다. 언제든지 우리의 실지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겉옷을 입을 때 우리는 바빌론의 원칙 안에 있다 — 수 7:21, 마 6:1-6, 15:7-8.

2. 이것은 성령계 거짓말을 한 아니니아와 삼비라의 죄였다(행 5:1-11). 그들은 주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대단히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를 원했다.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려고 하지 않았으면서도 사람 앞에서 전부를 바친 것처럼 행동했다.
 - B.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행한 모든 것은 신부의 원칙이 아닌 창녀의 원칙으로 행한 것이다 — 요 5:44, 12:42-43.
 1.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 사람 앞에서 가장하는 것에서 구출받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 마 6:1-6, 15:7-8.
 2. 거짓 헌신은 죄이고, 거짓 영성도 죄이다. 참된 경배는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하는 경배이다 — 요 4:24, 5:41, 44, 7:18, 12:42-43, 고후 4:5, 살전 2:4-6.
- III.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십시오.”(마 16:6). “그때서야 제자들은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마 16:12).**
- A.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부활과 천사들과 영들을 부인하는 것(행 23:8)으로서 오늘날의 현대주의와 같았다.
 - B.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순수하지 않고 악하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보여서는 안 될 누룩과 같았다 — 출 13:7.
- IV.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십시오” — 막 8:15.**
- A. 헤롯의 누룩은 그의 부패하고 불의한 정치였다. 헤롯이 침례자 요한을 죽인 것은 노예-구주의 신실한 선주자를 미워하는 어둡고 부패한 세상 권력으로 표현된 사탄의 증오를 가리킨다 — 막 6:26-27.
 - B. 우리는 성도들을 접촉하거나 교회들 안에 있는 일에서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를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의 영리함을 사용하면서 가장하는 ‘외교’의 길을 취하는 것이다. 그보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기 위해 정직하고 신실한 방식으로 순수하게 그들을 접촉해야 한다 — 딤후 5:1-2, 고후 3:3, 6.
- V. 사탄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가르침 곧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들과 이상한 가르침들이라는 누룩을 교회에 넣는다 — 딤후 1:3-4, 행 2:42, 히 13:9, 마 13:33.**
- VI. 사탄은 성직자 계급 제도로, 형제들 가운데서 첫째가 되기를 사모하는 이들로 교회를 부풀린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 섞이는 것(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그리스도를 분배하도록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영에 의해 모든 것을 하고 말함으로 다른 이들과 교통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기만 한다. 그들은 아무 것도 아니면서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여 스스로를 속인다 — 요삼 9, 갈 6:2-3, 비교 마 20:25-28, 23:6-11.**
- A. 우리는 결코 다른 이들을 시샘하면서 주님을 위한 어떤 일에서나 첫째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일에서 경쟁하는 것은 야심의 표시일 뿐 아니라 교만의 표시이기도 하다 — 눅 17:10, 빌 1:15, 갈 5:25-26.
 - B. 우리가 자신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교만의 또다른 형태이다(롬 12:3). 자기 자랑, 자기 격상, 자기 영광, 자기 뜻, 자기 정당화, 자기 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모두 교만의 추하고 비열한 표현들이다(갈 5:25-26).
 - C. 크게 되려고 하고 종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과, 첫째가 되려고 하고 노예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것도 교만의 표시이다 — 마 20:26-27.
- VII. 사탄은 성도들의 생활에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대치함으로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이들로 교회를 부풀게 한다 — 벰전 5:3, 막 10:42-44, 비교 고후 4:5.**
- A. 다른 이들에게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존중하도록 이끌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한다거나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배 권위와 머리의 권위를 모욕하는 것이다.
 - B. 기도 안에서 주님께 가지 않고 단지 어떤 형제가 어디로 가라고 하거나 무엇을 하라고 해서 그곳으로 가거나 어떤 것을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지배 권위와 머리의 권위를 모욕하는 것이다.

- C. 이것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바울과 그의 소수의 동역자들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다. 그 동역자들은 바울이 어떤 곳으로 가거나 자신에게 와서 함께 있으라고 주님의 권위로 지시할 수 있었던 이들이었다. 워치만 니 형제님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와 비슷한 이 본을 따랐다. 이런 방식으로 니 형제님과 동역한 이들은 약 열 명에 불과했다 — 딤후 1:3, 고전 4:17, 16:10, 딤후 4:21.

VIII. 사탄은 욕하는 말로 교회에 누룩을 넣어 부풀린다.

- A. 우리는 욕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욕하는 것은 흑독하거나 과도하게 책망하거나 비난하는 것이다. 욕하는 것은 폭력적인 언어로 어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다. 욕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책망하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 공개적으로 무례하게 그를 짓밟거나 멸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오만함에서 나온다 — 갈 5:14-15, 25-26.
- B. 욕하는 사람들은 강압적인 방식과 거만한 말로 성도들에게 겁을 주고 굴복시킨다. 욕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 노예들을 때리는 이들이며 이것은 그들이 동료 믿는 이들을 습관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뜻한다. 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 마 24:45-51, 고전 6:9-10.
- C. 욕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욕하는 말을 한 사람들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교회가 하나를 지키려면 형제 자매들은 반드시 욕하는 말에 대항해야 한다 — 비교 민 6:6.

IX. 사탄은 주님의 최신의 말씀의 사역을 통한 시대의 사역의 가르침과 시대의 사역의 말씀을 긴밀히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부풀린다. 살아 계시고 움직이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말씀하심에 의해 움직이신다 — 딤후 3:10, 딤후 4:6, 암 3:7, 겔 1:3, 3:1-4.

X. 사탄은 통제하는 한 이상, 곧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이상을 내재적이며 내적으로 따르기보다 단지 통제하는 한 사람의 외적으로 따르는 실행으로 교회를 부풀린다 — 행 26:19.

XI. 사탄은 교회를 지방주의로 부풀린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지방 교회가 독립적이고 자치적이므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태도를 갖는다. 이것은 지방주의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다.

- A. 독립적인 지방 교회는 사실상 지방 종파이다. 우리는 교회 실행에서 모든 지방주의에 반드시 십자가를 적용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제국, 곧 자기 자신의 군주국을 세우기 위해 교회의 터라는 진리를 오용한다.
- B. 교회의 터의 중요한 요소는 신성한 삼일성의 살아 있는 실재이신 그 영의 실재이다(요일 5:6, 요 16:13). 이 영을 통해 교회의 터가 생명 안에 적용되는 것이지 율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 C. 우리는 지방 교회들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 교회들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와 최고봉, 곧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에 도달하기 위해 취하시는 절차이다.
- D. 우리는 지방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으로 이끌리거나 안내될 것이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해 자주 함께 모여서 서로 섞여야 한다.
- E. 하나님께서는 몸 안에 분열이 없도록 몸을 함께 섞으신다(고전 12:12, 24-25), ‘섞이다’라는 말은 ‘조절되다’, ‘조화되다’, ‘조율되다’, ‘연합되다’를 의미한다.
- F. 우리 가운데서 섞임의 실재를 가지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서로 안에 그리스도를 분배하기 위해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영에 의해 존재해야 한다. 섞임은 우리의 모든 차이점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XII. “주님께서서는 섞임의 방식으로 나와 함께 섬길 동료 노예들인 많은 형제들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나는 이것이 주님의 몸을 위한 주님의 주권적인 공급이며 그분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최신의 방식이라고 느낀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94 - 1997판, 5 권, “감사하며 보내는 교통의 편지” 1997년 3월 24일, 위트니스 리, 영문판 525 쪽).